



## ZOOM IN + H

73RD ANNIVERSARY

### 현대건설 창립 73주년 ...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Hyundai E&C, the prime construction affiliate of Hyundai Motor Group, celebrates its 73rd anniversary this year. Hyundai E&C has made history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fter it entered the overseas market in 1965 for the first time among domestic builders, Hyundai E&C became the first Korean builder to cumulatively exceed the 100-billion-dollar mark in the overseas sector in 2013 and achieved operating profits worth one trillion won in 2015,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Hyundai E&C has grown into a leading company in the domestic market, consequently solidifying its position as Korea's primary builder. Behind this remarkable achievement are earnest efforts made by all the Hyundai E&C people. Now is high time to build a new future. A new challenge toward the creation of a "centennial company" for the next generation has already begun. ▶ Continued on page 6, 7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창립 73주년을 맞이했다. '국내 건설사 최초 해외시장 진출'(1965), '국내 최초 해외 공사 누적 수주액 1000억 달러 돌파'(2013), '업계 최초 영업이익 1조원 달성'(2015) 등 현대건설이 지나온 길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역사다. 사람으로 치면 고희(古稀)를 훌쩍 넘긴 현대건설은 성장과 도약을 거듭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로 우뚝 섰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선배들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어제의 성공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때다. 후배들에게 물려줄 '100년 기업'을 향한 도전은 이미 시작됐다. ▶ 관련기사 6, 7면



# Hyundai E&C conducts CSR activities in celebration of 73rd anniversary

Hyundai E&C makes charitable donations at home and abroad

Our company set out to conduct a wide assortment of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t home and abroad to celebrate our 73rd anniversary this year.

Our company hosted a CSR event with the Next Leader Board in an aim to provide coronavirus-related aids for welfare facilities and local residents in Iraq. Between May 18 and 21,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from the head office and the domestic project sites donated clothes, shoes and other items. The collected donations will be delivered to Hakim Foundation and underprivileged households near the IONE construction site. Hyundai E&C first entered the Iraqi market in 1978 by conducting the first phase construction of



'생계지원키트 및 헌혈증 기부' 행사



'사랑의 물품 기증 이라크 보내기' 행사

the Basra sewage system. Since that, we have performed 39 construction projects valued at a total of seven billion dollars. Hyundai E&C has built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ingdom, for example, by inviting Iraq's children patients to Korea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in 2019.

Moreover, our company donated about 700 livelihood kits including daily necessities, foods and hand sanitizers to those living in the Daegu, Gyeongbuk and Busan provinces hit hard by coronavirus on May 13. The donated kits will be delivered by Plan International to the

less supported areas.

The same day, 500 blood donor cards collected by our employees during 2019 were donated to Plan International.

The donated cards are expected to be sent to hospitals in need of support in a bid to help seek children receive

blood transfusions.

Meanwhile, our company has so far conducted a wide range of CSR activities at home and abroad. In 2019, 3,580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Hyundai E&C spent about 17,000 hours in participating in CSR activities.

## 이웃 사랑 실천으로 '창립 73주년' 의미를 되새기다

'사랑의 물품 기증 이라크 보내기'... 대구·경북·부산 지역에 '생계지원키트 및 헌혈증 기부' 등

우리 회사가 창립 73주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사랑의 물품 기증 이라크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다. 창립 73주년을 맞아 차세대 리더보드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이라크의 복지시설 주민을 돕고, 코로나 구호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

련됐다. 임직원이 기부한 물품 중 일부인 3000점은 방호복 500점,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과 함께 이라크 정부 산하의 '하킴재단'과 IONE현장 인근 빈곤 가정 및 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잔여 기증물품은 종로구 저소득층 지원금 마련을 위해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한다.

1978년 '바스라 하수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이라크와 인연을 맺은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총 39건, 총 7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이라크 환아 초청 치료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이라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오는 5월 25일 진행될 예정인 전달식에는 우리 회사 이원우 플랜트사업본부장, 이해주 글로벌마케팅사업부장을 비롯해 알바라크 주한 이

라크대사, 김태성 한국이라크우호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 밖에 우리 회사는 5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부산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계지원키트(생필품, 식료품, 손 세정제 등) 700여 개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윤영준 주택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플랜코리아 김병학 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해당 키트는 플랜코리아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식료품 및 생활품 지원이 원활치 않은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임직원이 지난해에 모은 헌혈증 500장도 함께 기부했다. 기탁된 헌혈증은 플랜코리아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병원에 전달해 환자들의 수혈 지원 등에 사용된다.

## 현대건설, 첨단 IT기술로 건설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스마트건설 전담 조직 신설... 토목·건축 혁신현장 선정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제2공구) 조감도

우리 회사가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스마트건설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 회사는 최근 스마트건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첨단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토목·건축 혁신현장을 선정했

다. 시범 운영을 통해 기존 개별적으로 적용하던 첨단 IT기술을 통합·적용해 기술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안전성은 물론 생산성이 높은 표준시스템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 '한국

타이어 주행시험장 조성공사'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제2공구)' 등 토목 혁신현장에는 ▶스마트 교량 ▶스마트 도로 ▶스마트 터널 등과 관련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CDE(Common Data Environment)\*, MG(Machine Guidance)\*, HIoS(Hyundai IoT Safety System)\* 기술 등이 시험 적용된다.

특히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는 현장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실시간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HIoS/VR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공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대시보드를 통해 업무 효율성도 높인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구광 물류센터' 등 건축 혁신현장에

는 20여 개 스마트건설 기술을 통합·실증해 전 현장에 신속히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BIM 기술은 지금까지 발주처가 요구하거나 기술적으로 필요할 때만 활용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건축·주택 모든 현장에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BIM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시공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한 후 구조물을 시공하는 것이 골자다. 완성된 건물은 BIM과 최종 비교, 점검하는 등 초정밀 시공을 실현한다.

스마트건설 담당자는 "스마트건설 기술은 생산성·품질 향상, 수행체계·작업 환경의 변화 등 산업 전반에 큰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회사는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스마트건설 정기협의체 구성, 스마트건설 정기 세미나 개최, BIM 교육 의무화 등 직원들의 의식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 정보 모델링. 3차원 설계 방식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
- CDE(Common Data Environment)** BIM 협업 환경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으로 BIM 자료를 공유해 업무 코디네이션 및 협업 수행을 지원하는 솔루션.
- MG(Machine Guidance)** 마신 가이드스. 굴착기에 부착된 센서들을 통해 장비 기사의 작업을 보조/가이드해 주는 시스템.
- HIoS(Hyundai IoT Safety System)** 현대건설 IoT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현장 안전 및 환경 관리로 사각지대와 공백 시간을 보완/관리하는 시스템.
- VR 안전관리 시스템** BIM 기반으로 작업 환경을 가상의 세계에 구축해 작업 절차 및 동선을 검토하고 사전 위험 요소를 숙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



# Hyundai E&C recognized as global leading eco-friendly company

Our company enters the CDP Hall of Fame for two consecutive years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Korea, a local branch of one of the most prestigious sustainability evaluating agencies, announced that Hyundai E&C has entered the CDP Hall of Fame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CDP provides investors around the world with analysis reports on management information concerning climate change, water, forest resources

and other environments. CDP's evaluations are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reliable sustainability evaluation indicators, along with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Our company has maintained its position in the CDP Hall of Fame for two straight years by obtaining higher scores across all categories such as strategie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efforts to cut greenhouse gases, management of greenhouse gases and promotion of new businesses. Only companies that have been chosen for CDP's Carbon Management Honors Club for five years in a row are eligible for the Hall of Fame, which implies that Hyundai E&C is considered one of the world's most competitive companies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 글로벌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 '우뚛' ... 2년 연속 'CDP Korea' 명예의 전당 입성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 선정, 세계 수준의 경쟁력 인정받아

우리 회사가 최근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CDP Korea 명예의 전당'에 2년 연속 입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

으로 기후변화, 물, 삼림 자원 등 환경과 관련된 경영 정보를 분석한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신뢰도 높은 지속가능평가 지표로 인정받는다. 이번 평가는 CDP 한국위원회가 국내 시가

총액 상위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우리 회사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온실가스 감축 노력, 온실가스 관리, 신사업 추진 등 전 영역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명예의 전당'은 5년

연속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Honors Club)'을 수상한 기업에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 우리 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일컫는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2030 글로벌 그린 원 파이어나너(Global Green

One Pioneer)라는 비전 아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선제적 환경에너지 경영 전략을 펼친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이번 수상을 밑거름으로 글로벌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GROUP NEWS

#### 현대건설·(사)한국발전교육원, 발전교육 협력 협약식



우리 회사가 지난 4월 28일 서울 계동 본사에서 (사)한국발전교육원과 발전교육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우리 회사 손준 에너지사업부장, 박정근 발전수행실장을 비롯해 한국발전교육원 이충호 원장, 우창해 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는 전

력 부문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 지식 정보기술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향후 양사는 외국인 교육프로그램 운영(현대건설 해외사업 외국인 교육)과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발전 기초, 발전설비 모의 훈련 및 현장 실습 등)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민관 협력 프로젝트 '쿨루프 하남' 첫 결실 맺다

우리 회사가 민관 협력 프로젝트 '쿨루프 하남(Cool Roof) 하남'의 첫 성과를 거뒀다.

하남시와 현대건설, KCC가 공동으로 진행한 '쿨루프 하남'은 노후 건축물 지붕에 차열 페인트를 무상으로 도색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에너지 소비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노후 건축물 지붕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해 여름철 30~40%의 냉방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하남시, KCC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4월 첫 대상지인 상산곡동 소재 경로당 옥상의 작업을 진행했다.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2차 현장 직원들이 프로젝트의 책임 시공에 나서 바탕면 처리부터 도장 작업까지 직접 수행했다. 5월 8~13일에는 2차 사업지인 초이동 6동 마을회관의 도장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 New Hyundai Motor film 'Next Awaits' demonstrates football's ability to inspire hope

Hyundai Motor has today released "Next Awaits," its latest pan-European film to feature star players from all five of its domestic football club partners. The film celebrates the fact that after a pandemic-induced hiatus, most European football teams and their fans hope to soon resume playing.

"Next Awaits," which can be viewed here <https://youtu.be/L9Q8gtOw8Tc>, features a number of star players from each of Hyundai's partner clubs: AS Roma, Atletico de Madrid, Chelsea FC, Hertha Berlin and Olympique Lyonnais. The film begins with a voiceover, which states "we are missing something." Players are then shown undertaking a series of training sessions in preparation for their return to the football pitch. They are driven by a desire to become better, to be ready for the next matches ahead.

The video highlights the fact that, even though the world is facing an unprecedented crisis, Hyundai, football players and fans remain united and driven by a will to progress. Despite the difficulties presented by coronavirus, football provides a platform for hope and positivity. As lockdown measures recede around the world and society slowly returns to pre-pandemic conditions, professional and amateur player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progress by coming back better



and stronger, ensuring fans can once again enjoy the sport when the season resumes.

In total, 27 footballers from across Hyundai's portfolio of domestic partner clubs feature in the film. These range from Olympique Lyonnais' Dutch international Memphis Depay and Atletico de Madrid's FIFA World Cup winner Thomas Lemar, to stars from the women's game such as AS Roma Women's England international Toni Duggan.

This weekend, Hertha Berlin will be in action in Germany's Bundesliga. Fans in other countries hope they will soon be able to enjoy watching their teams in action, too. "Next Awaits" shows that, although watching and playing football is not currently possible for most people, Hyundai will be there to support these clubs and their fans upon its return.





한한 일교의 도시정비사업실 영업맨들, 이진우 차장, 박재원 차장, 이대성 부장(대우), 김길수 과장, 유용혁 차장(원익부티).

# 2020년 도시정비 영업 수주 1조원 돌파 “수주 영업의 최전선 우리가 지킵니다!”

**도시정비 영업맨 5인 인터뷰** 지난해 도시정비 수주 1위를 차지한 우리 회사가 올해에도 수주 강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5개의 도시정비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며 단기간 누적 수주 1조원을 돌파한 것. 이와 같은 성과는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를 무기로 수주 영업 최전방에서 분투한 도시정비영업실의 ‘영업맨들’ 덕분이다. <사보신문>은 이들을 만나 수주 뒷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 신뢰를 주는 단 하나의 단어, 현대건설

**Q** 올해 업계 중 가장 먼저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업 최전방에서 느끼는 우리 회사의 자력은 무엇인가요?

**이대성 부장(대우)** [이·이 부대] 올해 우리 회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가 결코 낮지 않아요. 1조원 돌파는 그 목표로 가는 여정 중 하나죠. 영업을 하며 현대자동차그룹 편입 이후 더욱 높아진 회사의 위상과 우리 회사 주택 브랜드의 수주 경쟁력을 실감합니다. 하반기에도 이 분위기를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봅니다(웃음).

**이진우 차장** [이·이 차장] [박재원 차장] [이·박 차장] 도시정비사업의 발주처인 조방의 평가 기준은 주택 브랜드, 시공 능력, 자금력이에요. 우리 회사는 이 삼박자가 조화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길수 과장** [이·김 과장] 영업을 하다 보면 기술 실현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아무래도 상세하게 이해를 잘 못하죠. 하지만 “현대건설이 하는데 무엇이 문제라 되겠습니까, 믿어서도 됩니다”라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시죠. ‘현대건설’이라는 네 글자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력입니다.

**유용혁 차장** [이·유 차장] 저는 지난해 10월 영남영업소로 경력 입사했습니다. 경력 입사로서 늘랐던 부분은 우리 회사의 수주 시스템이었어요. 타사와 달리 동시다발적으로 수주 영업을 가능한 체계가 마련돼 있었거든요. 이 또한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 1조원의 열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Q 디에이치·힐스테이트의 브랜드 위상이 많이 체감한다고요.

**이 차장** 제가 맡은 장위 11-2구역 가로(街路)주택 정비사업(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조합에서 우리 회사에 시공을 요청한 케이스입니다. 연면적 2만358㎡, 세대수가 178밖에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다 보니 처음에는 사업 참여에 회의적이었어요. 내부 검토 끝에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차원에서 입찰을 진행했죠. 이에 반색하듯 총회 투표에서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는데,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이 부대** 세종에서 평판이 좋은 덕분인지, 대전에서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치는 아머마합니다. 대전 대흥동 1구역의 경우 타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프로젝트였는데, 현대건설이 입찰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을 정도였죠. 공동도급임에도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조합원 분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티는 안 보지만, 속으로 흐트렷습니다.

### Q 수주 비하인드 또한 궁금합니다.

**김 과장** 강원도 원주의 경우 타이밍이 잘 맞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초까지만 해도 원주시 미분양이 2700여 건에 달했거든요. 12월 16일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 2월에는 384개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덕분에 수주 심의도 가결되고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죠. 5월 현재 원주시 미분양 물량은 50개 남짓인데, 다시 생각해도 수주 타이밍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 차장** 범천 1-1구역은 대형 건설사 간 수주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곳입니다. 우리 회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사 대비 탄탄한 재무구조로 조합원 47명 가운데 23표를 얻어 수주에 성공했죠. 특히 49층 규모

로 지어지는 만큼 초고층 건물에 대한 기술력 어필도 중요했는데요. 부지 인근에 우리 회사가 2014년 준공한 63층 규모의 부산국제금융단지(BIFC)가 있어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박 차장** 서울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의 경우 조합이 우리 회사에 시공 참여 의향을 요청하면서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3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조합은 우리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어. 아모레퍼시픽 사옥 준공을 통해 보여준 기술력과 용산 지역 최초로 디에이치 브랜드가 들어선다는 점이 높게 평가한 거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98명 중 76표(참석자 81명)를 받으며, 우리 회사의 2020년 첫 도시정비사업 사업지가 됐죠.

### 조직의 맨파워가 이뤄낸 결실

**Q** 하나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대** 우리 다섯 명 모두 사보신문을 통해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소송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황하게 법률 검토를 해주는 법무실이 큰 힘이 되는 이유죠.

**유 차장** 디자인마케팅실도 늘 고마워요. 주택설계팀의 눈길을 사로잡는 멋진 조감도 덕분에 조합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특화평면설계 우수 싸움이 치열한데요. 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브랜드마케팅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 사업지의 잠재 가치를 알아봐준 데다, 마케팅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기에 간간한 내부 수주 심의를 통과해 실제 수주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박 차장** 주택건축팀에는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부분 경쟁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입찰 하루 전날에도 견적이 바뀌 때가 있어요. 저희는 구두로 부탁드리지만, 주택건축팀에서는 모든 수치를 바뀌어 하니 늘 많이 번거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일정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차장** 재무관리실과 예산관리실의 도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이주비와 사업비가 선투입되다 보니 재무관리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재무관리실이 조합에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해주고, 예산관리실에서 관련 예산을 확정 지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김 과장** 또한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언론이에요. 특히 5대 일간지에 나온 기사는 영향력이 크죠. 홍보실에서 디에이치, 힐스테이트를 언론에 잘 홍보해준 덕분에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보신문과 힐스테이트 매거진을 영업에 애용하고 있습니다. 사전 영업 단계에서는 활용할 자료가 많지 않고, 초반에 공동 화제를 찾기도 힘들거든요. 그때 홍보실에서 만든 책자를 나눠 드리며 말꼬를 트는 거죠.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사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 전장에서 무기와 보급 없이 싸울 수는 없죠. 저희 다섯 명이 각 프로젝트를 대표해 인터뷰하고 있지만, 하나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조직의 검토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서 유 차장이 말한 것처럼 수주를 잘 하게끔 역량이 갖춰져 있는 거죠. 직원들의 맨파워, 수주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돼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Q ‘현대건설 도시정비 영업맨’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이 부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현대아파트는 아직도 못이 안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만큼 현대건설이란 회사를 신뢰하시는 거죠(웃음). 제가 소속된 중부사업소는 올 2월 개설됐어요. 대전 대흥동 1구역 수주로 첫발을 잘 내디딘 만큼 좋은 에너지를 이어 받아, 중부사업소가 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등에서 수주 남보를 계속 들려드렸으면 합니다.

**박 차장** ‘현대건설은 온 국민의 회사다’라는 말을 제감할 때가 있어요. 영업을 하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현대건설과 인연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현대건설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건설 역사’인 만큼 현대건설의 영업맨으로서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온 국민이 다 아는 현대건설의 영업 담당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프라이드가 생겨요. 개인적으로는 올 상반기에 수주를 한 건 없으니, 하반기에도 한 건 더 수주하고 싶습니다. 또 장위 11-2 구역 관련 업무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김 과장** 조합 집행부가 타사보다 당사를 더 반겨주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4월 25일 원주 원동나래구역으로 누적 수주 1조원을 돌파한 만큼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치를 크게 웃돌 수 있도록 제 지역에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유 차장** 범천 1-1구역은 현대건설에 입사해 처음으로 마수결이한 현장이어서 더욱 애착이 갑니다. 하반기에도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 Zoom in

### 2020년 상반기기를 빛낸 도시정비사업 현장들을 소개합니다! (4월 말 기준)

#### ‘용산의 주거 미래를 세우다’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수주일** 3월 21일 **계약고** 3037억(원당사 100%) **연면적** 15만952㎡  
**공사개요** 지하 5층-지상 33층, 5개 동(공동주택 340세대, 오피스텔 55실, 부대시설)

서울 용산역 노후차 입지에 위치한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194 일대 구역면적 2만211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아파트 340가구와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가 완공되면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5.6번 출구와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로 거듭난다. 특히 사업이 건너편에는 우리 회사가 지은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있어 신용산역 일대가 국제 복합 업무지구로서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 최고의 주거 공간을 꿈꾸다’ 부산 범천 1-1구역



**수주일** 3월 28일 **계약고** 4160억(원당사 100%) **연면적** 25만4710㎡  
**공사개요** 지하 6층-지상 49층, 8개 동(공동주택 1323세대, 오피스텔 188실, 부대시설)

부산의 혼지 않은 도심의 대규모 평지 구역인 부산 범천 1-1구역은 부산 진구 범일로 192번길 26 일원 2만76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8개 동에 아파트 1323가구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 갖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 1호선 범내골역과 2호선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을 자랑한다.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해 자녀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어 30~40대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문산 숲세권 프리미엄을 누리다’ 대전 대흥동 1구역



**수주일** 4월 11일 **계약고** 1897억(원당사 45%, 853억) **연면적** 13만8653㎡  
**공사개요** 지하 2층-지상 30층, 12개 동(아파트 1095가구, 부대시설 등)

대전 대흥동 1구역 재개발은 대전 중구 대흥동 336-16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 12개 동 아파트 1095가구,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단지 전체가 갤러리로 완성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대전의 보물 보문산의 숲세권 프리미엄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 내에 텃밭 숲과 아름다운 예술 장식품을 배치해 대전의 주거 품격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도시 속 청정 자연을 품은 명품 조경’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주일** 4월 24일 **계약고** 402억(원당사 100%) **연면적** 2만3581㎡  
**공사개요** 지하 2층-지상 15층, 2개 동(공동주택 178세대, 부대시설)

서울 장위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처음으로 들어선다.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서울 성북구 화랑로 19가 길 8-6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 2개 동, 아파트 178가구와 부대시설 등을 갖는 프로젝트로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트랜디한 세대 평면,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설계, 주차 편의 개선, 다양한 커뮤니티 등으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 ‘원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 원주 원동나래구역



**수주일** 4월 25일 **계약고** 2080억(원당사 100%) **연면적** 15만8059㎡  
**공사개요** 지하 4층-지상 22층, 13개 동(공동주택 1005세대, 부대시설)

원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 사업은 강원도 원주시 원동 산10-1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 13개 동, 아파트 1005가구와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다. 원주 시내에 들어서서 두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인 만큼 커튼월look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선도적인 디자인의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거기에 보이스톡 등 디지털 주택 기술을 접목해 강원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첨단 아파트가 될 것이다.



# 1947 2020

## 현대건설 창립 73주년

1947년 5월 25일, 서울시 중구 초동 현대자동차공업사 건물에 '현대건설사'라 쓰인 간판 하나가 붙었다. 1950년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합병 후 '현대건설주식회사'로 출범한 우리 회사는 전쟁으로 초토화된 땅 위에 도로를 내고 다리를 놓으며 국가 재건에 앞장섰다. 전문 인력이나 제대로 된 장비도 없던 시절, 현장에서 부딪히고 밤새워 연구하며 우리의 내실을 단단해졌다.

전쟁의 상흔이 아물고 경제 기반 마련 사업이 활발해지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영역 또한 넓어졌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도전 정신과 끈기로 버티며 맑은 바 공사를 완수해낸 시간이 우리에게 더 큰 기회로 돌아온 것이다.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돌파구를 찾아 때로는 역동적으로, 때로는 묵묵히 건설에 매진한 73년의 역사가 우리의 오늘을 만든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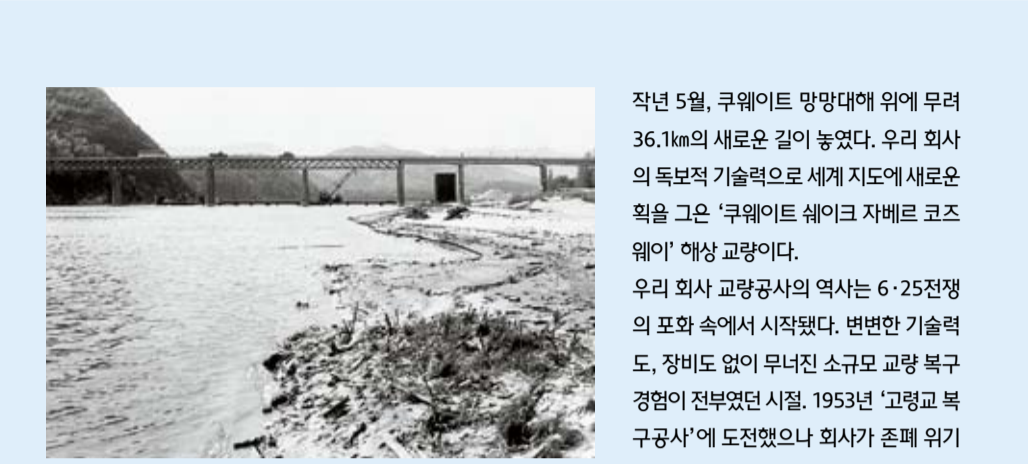
2020년, 건설업계를 선도하며 글로벌 리더를 향해 질주하는 현재.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역적을 남기며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대건설이 걸어온 지난 73년의 시간이 되짚어 봤다. 글·이진우



무교동사옥 vs 계동사옥



1961년 1월, 무교동 92번지. 우리 회사는 창사 14년 만에 첫 단독 사옥을 마련하며 이른바 '무교동 시대'를 열었다. 현대자동차공업사 건물에서 시작해 공화문 평화신문사 빌딩, 소공동 삼화빌딩으로 이어진 셋방살이를 청산하고 독자적으로 마련한 첫 사옥이었다. 무교동사옥은 당시 서울에서 손꼽힐 정도의 현대적 고풍 건물로 우리 회사의 성장을 상징했다. 최초 10여 명 남짓한 인원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조직이 원할히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됐다. 데 더욱 의미가 깊다. 이후로도 우리 회사는 1976년 세종로사옥, 1983년 계동사옥으로 터를 새로이 마련하며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사업과 조직의 규모를 소화해냈다. 이는 국내외 건설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며 사업적 기틀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2014년 신(新)계동사옥 시대를 맞은 이후 사무실은 넓고 쾌적한 분위기로 탈바꿈했다. 미팅, 휴식 등 용도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간들은 직원들의 편안하고 효율적인 회사 생활을 응원하고 있다.



작년 5월, 쿠웨이트 망망대에 위에 무려 36.1km의 새로운 길이 놓였다. 우리 회사의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 지도에 새로운 획을 그은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 교량이다. 우리 회사 교량공사의 역사는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작했다. 변변한 기술력도, 장비도 없이 무너진 소규모 교량 복구 작업이 전부였던 시절. 1953년 '고령교 복구공사'에 도전했으나 회사가 존재 위기에 처할 만큼 막대한 손실을 남겼다. 그러나 전 공정을 맨손으로 진행하다시피 하며 축적한 신용과 노하우는 더 큰 자산으로 남았다. 장비를 개발하고 현장에 부딪이며 발전한 우리 회사의 기술력은 1958년 '한강인도교(한강대교) 복구'를 시작으로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에 13개의 다리를 놓았다. 우리가 만든 교량을 가로지르는 횡수가 늘수록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했다. 국내에는 국내 최초 현수교 '남대교' 국내 최초 사장교 '진도대교' 현수교 건설 기술의 집결지인 '울산대교' 등이, 해외에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의 협곡을 가로지르는 '머리케인 교량'을 시작으로 당대 최장 교량인 말레이시아의 '페낭대교' 세계 최초 사장교·현수교 복합 교량인 '타키 보스포러스 제3대교' 등이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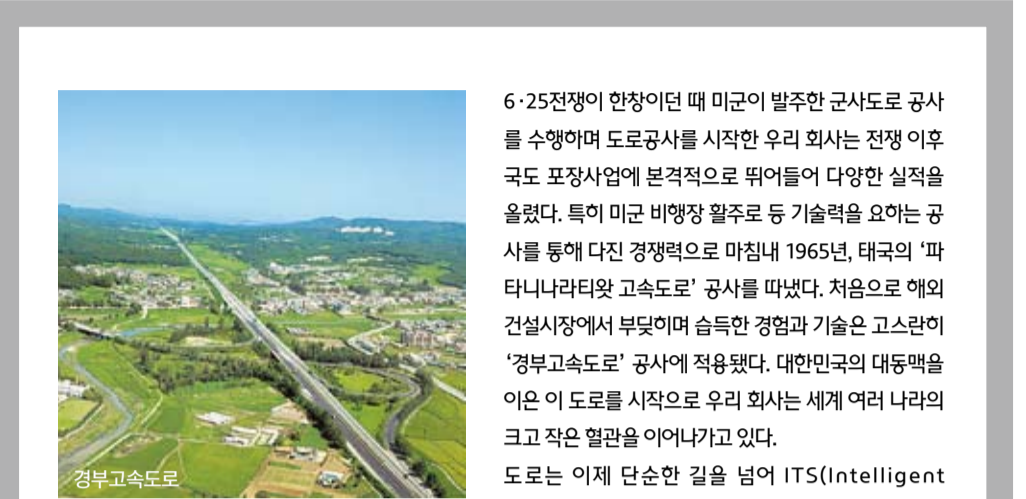


고령교 vs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마포아파트 vs 힐스테이트&디에이지

채소밭과 과수원 근처, 경부고속도로 공사에 쓰는 장비를 보관하던 압구정 모래밭에 상상 못 할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1975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일대가 고급 주거단지로 거듭난 것이다. 우리 회사는 1964년 국내 최초 단지형 아파트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을 건설하며 주거문화를 선도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가 열린 이래로 '현대'는 오랫동안 아파트의 대명사였다. 급격한 산업화로 연구가 도심으로 몰리던 때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며 심각한 주택난 해결에 일조한 우리 회사는 현대홈타운, 현대아이페리온 브랜드를 통해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 개념을 반영해 왔다. 이어 아파트 건설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2006년 힐스테이트, 2015년 디에이지 브랜드를 론칭하며 주거환경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아파트는 단순히 '사는 곳'을 넘어 '살'의 가치를 높이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우리 회사는 과거 선택들이 축적한 노하우에 최첨단 주거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 주거문화의 기준을 높이고 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때 미군이 발주한 군사도로 공사를 수행하며 도로공사를 시작한 우리 회사는 전쟁 이후 국도 포장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다양한 실적을 올렸다. 특히 미군 비행장 활주로 등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를 통해 다진 경쟁력으로 마침내 1965년, 태국의 '파타나리랏 고속도로' 공사를 따냈다. 처음으로 해외 건설시장에서 부딪히며 습득한 경험과 기술은 고스란히 '경부고속도로' 공사에 적용됐다. 대한민국의 대동맥을 이은 이 도로를 시작으로 우리 회사는 세계 여러 나라의 크고 작은 열광을 이어나가고 있다. 도로는 이제 단순한 길을 넘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자율교통제어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일었다. '창원~부산 민자도로'의 터널 내 2차 사고 방지 서비스, '제2영동고속도로'의 노면상태 예측시스템 등은 운전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ITS 기술을 가터로 '루사일 고속도로' 등 해외 고속도로에도 적용하며 전 세계에 미래를 향한 길을 내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vs 카타르 루사일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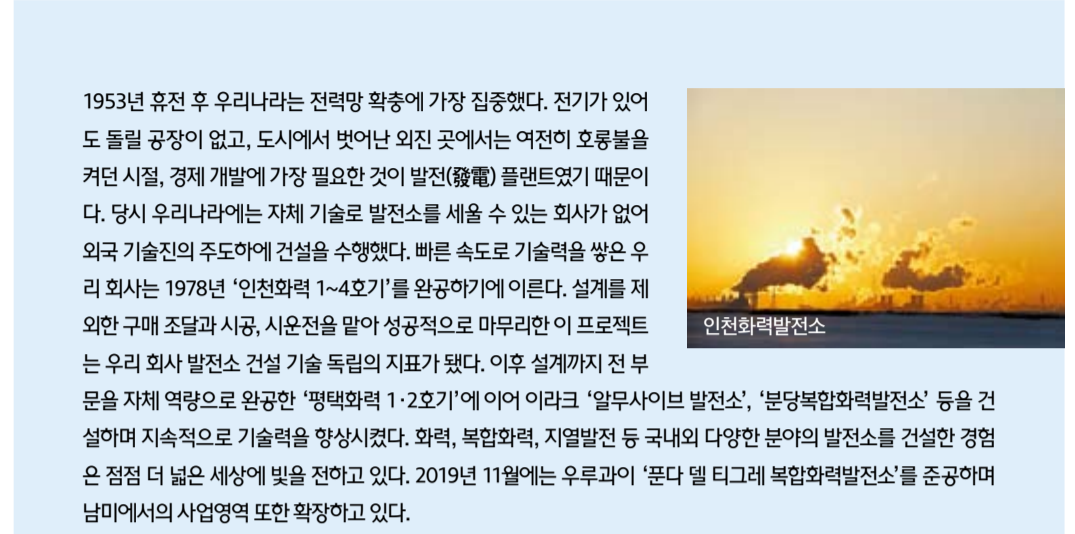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 내무성 본청 vs 카타르 국립박물관



사우디아라비아 내무성 본청 vs 카타르 국립박물관



태국 '파타나리랏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한 우리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역적을 다수 남겼다. 그중에서도 피라미드를 뒤집은 듯한 본체 위에 이슬람 사원 모양의 돔을 얹은 형태의 사우디아라비아 '내무성 본청'은 1992년 준공 이후 지금까지도 손꼽히는 건축물이다. 해외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했던 당시 사방사도 제대로 볼 줄 몰랐던 우리 회사가 치밀한 구조역학적 계산과 고난도의 시공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것이다. 이후 싱가포르 '센텍시티' 베트남 '비텍스코 파이낸스타워' 등 건설 역사에 길이 남을 발자취를 남기던 우리 회사는 2019년, 세계 최초로 건축 전 과정에 3D BIM(건축정보모델링) 기법을 도입한 '카타르 국립박물관' 준공에 성공했다. 건설 전 분야에 걸쳐 축적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랜드마크를 세우며 건설 한류의 이글고 있다.



인천화력발전소 vs 우루과이 폰다 델 티그레 복합화력발전소



2006 2014 2015 2019 2020



그때 그 시절 vs 그리고 현재



직원 10여 명 남짓한 영세기업에서 120여 명의 중견기업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1950년대 말 총무부·경리부·공무부·자재부·기술부 5대 부서 체계를 갖춘 이후 사세 확장에 따라 조직을 정비했고, 1958년에는 건설업계 최초로 대졸 공채를 도입해 역량을 뒷받침했다. 출근에서 볼 수 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장과 사무실 풍경이다. 거의 모든 남직원이 흰 셔츠에 넥타이 맨 양복 차림, 여직원들은 90년대까지 유니폼을 입었다. 컴퓨터 대신 서류 봉지와 펜으로 일하던 때도 있었다. 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도면도 손으로 그리던 그 시절에는 글씨를 잘 쓰는 것 또한 능력이었다고. '변화'와 '혁신'이 핵심이었던 현재, 우리 회사는 자유로운 바탕으로 일하며 유연한 기업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컴퓨터는커녕 전화기조차 흔치 않던 시절에도 사내 소통을 위한 매개가 있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당시 정인영 부사장의 주도로 창간된 사옥지 **〈현대〉**다. 원고를 알일이 손으로 써서 등사하는 방식으로, 한 권을 만드는 데 엄청난 품이 들었기에 간헐적으로 속간을 반복하며 발행했다. 현재 사보인 **〈HYUNDAI E&C TODAY〉**의 뿌리는 1979년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창간된 **〈현대건설〉**이다. **〈현대〉**에서부터 이어진 종이 사보는 사내 뉴스, 현장·직원 및 가족의 이야기, 건설업계 주요 동향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며 오랜 시간 우리 회사 임직원의 끈끈한 유대를 맺고 있다. 요즘은 공식블로그, SNS,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도 현대건설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현대건설' 채널, 카멜레온과 퀴라미어인형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는 우리 회사의 모습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 더욱 알차고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 라디오 DJ 30년, 음악의 역사 만든 배철수의 음악캠프

**피플인사이드**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존재감, 전무후무한 기록과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로 국내 팝음악의 기둥이 된 배철수. 그의 음악캠프가 30주년을 맞이했다. 룬 프로그램이 된 비결을 물었다.

글·사진=조지선 연세대 교수 / 출처=<이코노미스트>



영원한 DJ, 배철수가 음악캠프를 진행한 지 30년이 됐다. 밴드로 데뷔했을 때보다 더 빛나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배철수. 그의 음악 인생 제1 전성기는 하드록 밴드 '송골매' 리더 시절이다. 요즘 가요계 대세가 BTS라면 1980년대엔 송골매가 있었다. 그런 그가 1990년 3월 19일, MBC FM 팝음악 전문라디오 DJ를 맡아 '배철수의 음악캠프'(이하 배캠)를 첫 방송했다. 배철수와 음악캠프, 이제는 서로가 상징이 됐다.

오죽 장수 프로그램이면 MBC 라디오 PD는 배캠을 맡아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정도가 됐다. 그동안 배캠 PD가 30명 정도 바뀌었는데, 방송 초기 배철수와 함께했던 조성선 PD는 음악캠프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형이 10년을 한 건 정말 기적이야!"라고 했다. 처음 몇 년은 고전했다. 가요를 틀어야 일정 수준의 청취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시기에 정통 팝으로 경쟁하려니 어려움이 따르는 건 당연. 개편 때마다 프로그램이 폐지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오래하니까 이전 좋게 봐주시지만 초반엔 방송과 안 맞는 진행자였습니다. PD는 내가 방송 사고라도 낼까 걱정했고 청취자들도 내가 1년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로 내기를 했다고 해요."

### '배캠프'에게 없는 것은 술·담배·저녁약속

인터뷰에서 그가 거듭 밝힌 프로그램 장수 비결은 먼저 운과 건강함이다. 방송을 핑크를 내거나 지각한 적이 없다는 그가 다음으로 꼽은 것은 성실함이다. "내 입으로 성실하다면 좀 그렇지만, 알고 보니 성실한 사람이다라고요. 생활의 대부분이 배캠에 맞춰져 있습니다."

배캠프·라디오 공무원·MBC 직원 등 다양한 별명도 얻었다. 그중 배캠프는 시계처럼 규칙적인 생활이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애칭. 그의 하루 일과는 아침 9시에 일어나 토스트 두 쪽으로 식사를 하고, 뉴스를 검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1시 30분이 되면 방송국 주변으로 가서 젊은 PD나 작가들과 점심을 함께한다. 커피까지 마시고 나면 피트니스센터로 가서 운동 대신 목욕을 한다. 오

후 4시가 되기 전, 생방송 스튜디오에 입장하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간다. 책을 읽거나 쉬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데 많은 독서량은 그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사는 그에게 없는 것 세 가지가 바로 술, 담배, 저녁 약속이다. 이 생활을 지난 30년 동안 반복했다.

또한 생활의 중심에 배캠을 놓고 외부 방해로부터 자신을 지켰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항상 1순위에 두고 프로그램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면 아예 시작하지 않았다. "나는 라디오 DJ입니다. 더 이상 가수도 아니고, TV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TV 출연 요청을 술하게 거절했고 출입국 기록 직업란에는 라디오 DJ라고 적는다. 그가 라디오 DJ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였던 PD의 제안 덕분이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음악 처음 할 때처럼 노래를 소개하고 청취자의 사연을 듣는 것도 재밌어요." 이 초심은 30년 동안 유지됐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매일 행복했던 배철수의 DJ 30년. "음악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매일 행복하게 지냈는데, 30년이 됐다고 큰 축하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80년대 송골매는 당대 최고 스타였다. 가요 프로그램의 1위 자리를 밥 먹듯 차지하고, 록 밴드로서 유일하게 10대 가수상을 4년 연속 받았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가 행복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다. "그 시절엔 밴드를 유지하려면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를 해야만 했어요. 1년 중 클럽이 문을 닫는 현충일을 제외하고 364일을 매일같이 연주했죠. 취객들이 무대 위로 뭘 그렇게 던져대는지,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하듯이 어느 날 무대에 올라가기 싫었습니다." 좋아했던 음악이 싫은 일이 돼버렸을 때, 마침 행복의 여신이 그에게 라디오 DJ 활동이라는 새 기회를 선물했다. 10년 동안 최고의 록밴드 지위를 누리던 슈퍼스타가 원한 것은 더 큰 인기와 명성이 아니었다. "저는 일상이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일상이" 10주년, 20주년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책을 내고 상을 받고 콘서트를 여는 특별한 일을 벌였지만

그는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정확한 지점을 알고 있다.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에 내재된 소소한 기쁨 말이다.

### 성공해야 행복? 행복해야 성공 온다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틀어 놓고 청취자와 함께 레드 제플린, 이기 팝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청취자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떠오르죠." 한마디로 일터에서 행복한 사람의 성공 토대를 매일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셈이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이상, 그가 30년을 내달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행복해야 성공이 온다.

좋아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리고 배캠을 중심으로 설계된 담백한 하루하루가 배캠의 30년을 만들었다. "무슨 일을 하든 톱스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좋아하는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 최고 아닌가요. 우등상은 못 타도 개근상은 탈 수 있어요." 이 멋진 말을 곱씹다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더 멋있는 DJ의 오프닝 멘트가 듣고 싶어진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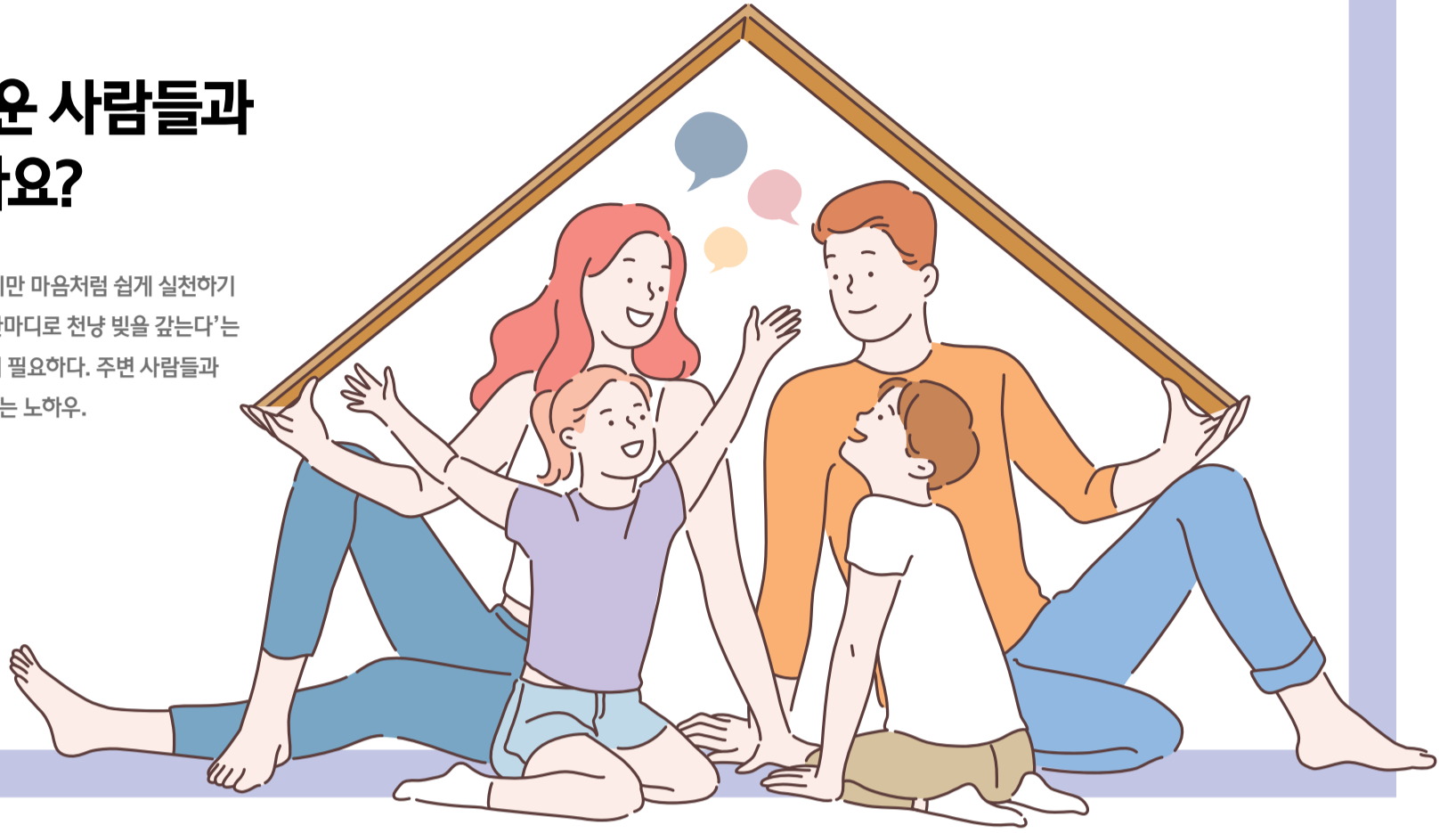


배철수의 음악캠프 30주년을 맞아 포스터 촬영을 하고 있는 배철수.



## 당신은 가까운 사람들과 '연결'돼 있나요?

**문화칼럼**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마음처럼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것, 바로 '말'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 말은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말하는 노하우.  
글=김윤나 『말그릇』 작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말마음상담소'에서 말과 그 원천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상담할 기회가 자주 있어요. '말의 기술을 배워서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서로의 관계를 내 뜻대로 잘 끌고 오기 위해서'라고 답하시더라고요. 부드럽게 포장돼 있지만, 가족 혹은 주변 동료에게 힘을 휘두르기 위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통제의 언어'죠. 물론 통제의 언어가 단기적이고 종속적인 관계,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통할 때도 있습니다. 비난·위협·회유의 말들이 빠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 봐야 하는 사이, 혹은 존중과 협력이 필요한 관계, 창의와 도전, 성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통제의 언어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부부, 부모-자녀 사이, 동료와의 관계에서 말로 사람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의도를 알면 반발하고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특히 '연결의 언어'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대화로 위로와 격려가 오가다 보면 견고한 관계까지 만들 수 있어요.

### 부부 관계 에너지 질문하기

연결의 언어 중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 간의 대화부터 생각해 봅시다. 먼저 부부 관계입니다. 삼십 년을 함께 살아도 속을 모르는 것이 부부라고 합니다. 특히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 질문'입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운나게 하고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사람 기분이 좋아질까' '신나게 아이처럼 떠들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말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 보세요.

“여보, 오늘 좋았던 일은 뭐예요?”  
“당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언제야?”

이와 같이 부부 사이에서 질문을 되찾아야 합니다. 요즘 돈 고민, 애들 이야기를 빼면 대화가 사라진 가족이 많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통을 시작해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기본 나쁘게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말을 말아야지' 하고 대화가 줄어드는 겁니다. 말수가 적은 중년 남성도 수다쟁이가 되는 주제들이 분명 있어요. 만약 뭘 질문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먼저 상대방을 관찰해 보세요. 에너지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관심'에서 발견됩니다. 물론 확인하는 질문, 의심하고 추궁하는 질문은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 오늘 대체 뭐한 거야?”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는 거야?”와 같은 질문은 오히려 대화를 망치게 되니 주의하세요!

### 부모-자녀 관계 사랑 표현하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평소 어떤 부모였는지 돌아봅시다. 혹시 자녀의 시험 성적이 좋을 때만 웃는 부모, 뭘 시키려고 할 때만 친절한 엄마,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문제만 터지면 방에 들어오는 아빠는 아니었나요. 자녀들에게는 시험을 망치고, 장난이 짓궂거나 친구와 싸워도 '나는 여전히 부모에게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어린 5살이든 성인이 된 20살이든 똑같습니다. '당연한 걸 굳이 말로 해야 아느냐'는 부모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 것이 없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사랑'을 말해야 진짜인 겁니다.



평소라면 잔소리를 했을 상황에도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주말에 종일 TV를 보는 아이에게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전보다 시험 점수가 낮거나 도전에 실패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단다”라고 말이죠. 부끄러워할지언정 분명 안심하고 기뻐하는 자녀의 눈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사랑을 회수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면서도 가르칠 수 있는 부모입니다. 평상시에 충분히 사랑을 심어 두어야, 중요한 순간에 훈육도 가능하고 자녀가 사춘기를 겪을 때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동료 관계 긍정적 동기 인정하기

마지막으로 회사 동료와의 대화는 어떨까요. 회사는 친목이나 사교를 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중과 다름을 인정하는 법이야말로 회사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결의 대화는 '긍정적 동기 인정하기'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근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 면담에서 회사의 문제점을 줄줄 읊더라고요. 점심시간, 근무 교대, 업무 프로세스를 지적하는데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얼마 됐다고..” 하는 마음도 생겼더라고요. 그러나 부정적인 관점으



로는 그 직원과 연결되거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저 직원에게도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마음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물어봤습니다.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거죠?”라고 묻자 “네! 저는 이곳이 너무 좋아서 정말 오래 다니고 싶어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답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답이었습니다. 만약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래?’하고 폄해 있었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마음이었죠.

‘우리 회사에는 사이코가 있어요.’ 제가 상담소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남들하고 달라서 이해가 안 되고, 성격이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회사 업무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 동료와 잘 지내고 싶은 것은 동일합니다. 방식과 표현이 다를 뿐이죠. 옆자리의 동료에게도 긍정적인 동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의견의 차이를 좁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통장 하나가 개설돼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 수시로 출금이 되지요. 남편이 일찍 오겠다더니 말없이 늦을 때, 부모 몰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아이, 이기적으로 책임을 떠미는 듯한 동료의 행동에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평균의 흑자 상태만 유지하면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출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소에 입금을 늘리세요. 찜찜 찜찜 사소하게 말이죠. 에너지 질문을 하고 그냥 사랑을 표현하고, 긍정적 동기를 알아봐 주는 겁니다.



## 또그려 앉지 마세요! 당신의 관절을 건강하게

**건강칼럼** 관절염이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 관절이 손상돼 염증이 발생한 병이다. 손상 원인은 여러 가지다. 이 때문에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열이 나거나 붓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흔히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떠올린다. 글=노진섭 <시사저널> 의학전문기자

### 같은 듯 다른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흔한 관절염이다. 이 염증은 무릎 관절, 고관절, 손가락 끝마디에 잘 생기는데, 좌우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만 나타난다.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고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는 조조강직(早晨強直)이 생기며 이는 30분 이내로 풀린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나 이 탓으로 돌려 방치하면 다리가 O자형으로 변하고 걸음걸이도 바뀐다.

뼈, 연골, 활액막, 인대, 힘줄로 구성된 관절에서 특히 뼈를 둘러싼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이 관절염의 가장 큰 특징이다. 우리는 무릎을 일주일에 5만 번 이상 구부리고 펴는데, 이때 마찰을 줄이고 체중의 충격을 흡수하는 부위가 연골이다. 오랜 세월 이런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연골은 닳고 찢어진다. 퇴행성 관절염은 젊었을 때 자신의 관절을 얼마나 혹사했는가에 대한 성적표를 중년 이후에 통보받는 셈이다.

젊은 사람도 이따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는데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단순 작업을 무리하게 반복하는 등 관절을 과다하게 사용한 결과다. 그 외에 가족력, 사고, 비만, 좌식 생활도 원인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관절이 작고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도 약해 남성보다 3~4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 임신, 출산,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도 관련이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조조강직 증상을 보이는데 퇴행성 관절염보다 오래(1시간 이상) 지속된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한쪽 관절에 통증이 생긴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은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통증은 손가락 관절에서 시작해 무릎, 어깨, 발목 등 전신 관절로 번진다. 그 외에 부기, 미열, 피로감,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안구 건조, 입 마름 등 전신 증상도 나타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신의 면역 세포가 관절을 파괴하는 자가면역 질환이어서 노화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에서 발병할 수 있다. 치료하지 않으면 2~3년 안에 환자의 20~30%가 관절이 구부러지고 굳는 현상(관절 구축)과 같은 영구 장애를 앓게 된다. 심한 경우엔 폐나 혈관까지 염증이 생겨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 관절 통증 4~6주 이어지면 병원으로

이처럼 원인이 다른 두 질환의 증상은 비슷하고, 눈으로 보서는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나이를 먹으면 으레 생기는 통증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정형외과뿐 아니라 류마티스내과나 가정의학과를 찾아도 된다.

그렇다면 병원을 찾아야 할 시점은 언제일까. 관절이 자주 붓거나 통증이 반복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때다. 유빈 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1개월 반 이상 관절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라는 게 지침이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통증이 1개월 정도 계속 되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환자의 증세를 살피고 관절 부위

를 관찰한다. 관절염이 의심되면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X선 검사를 추천한다. 혈액검사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혈액 속에서 특정 항체(항CCP 항체)를 발견하고 염증 수치가 높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일 가능성이 크다.

초기 염증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는 관절염 진단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관절의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X선 검사는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됐을 때 유용하다는 한계가 있다. 일부 환자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관절염을 가장 정밀하게 판정할 수 있는 영상 검사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성공률 90%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치료법은 통증을 줄이는 대증요법과 항노화 치료(항산화제)가 있다. 사실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소염진통제를 처방하거나 주사 치료를 하는 정도다. 나머지 80%는 환자의 몫으로 생활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해야 한다. 또그려 앉는 자세를 피하고 필요할 땐 찜질과 물리치료를 받는 게 좋다. 걷기나 수영 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 만일 늦게 발견해서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으면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경우 완치할 방법이 없던 과거에는 수술로 치료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지금은 약물이 좋아 치료 성공률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수술 치료는 크게 줄었다. 치료의 핵심은 얼마나 조기에 진단해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느냐에 달렸다. 증상이 생기고 1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예후가 좋다. 이상헌 건국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류마티스 질환이 과거엔 불치병으로 알려졌지만 조기 발견해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는 병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운동·휴식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빨리 망가지므로 또그려 앉는 동작이나 가파른 등산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원칙이다. 30분 평지 걷기, 수영, 스트레칭 등이 좋다. 관절이 망가진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픈 것을 참아가며 운동해서는 안 된다.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있다면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휴식을 취하고 통증이 줄어든 후에 시작해야 한다.



### 관절염 최다 발생 부위 '무릎 관절' 기능 오래 유지하는 방법

#### ① 자세를 펴고 걷기

목을 앞으로 내밀고 등이 굽으면 걸을 때 보폭이 좁아지고 무릎에 충격이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슴을 펴고 목을 당겨 전방 15도 위쪽을 주시하고 걷는 게 좋다. 이때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드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힘차게 흔들어 보자. 뒤쪽 견갑골과 주위 근육들이 많이 움직여 자세가 바르게 되고 어깨와 목의 통증도 개선된다.

#### ② 발에 주목하기

무릎 통증의 원인 중 중요한 것이 발 문제다. 나이 들수록 땅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발의 기능이 떨어져 걸기만 해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에 전해진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일단 신발을 튼튼한 것으로 바꾸거나 깔창을 활용해 보자. 발에 무리 가지 않도록 걷는 것도 중요하다. 발뒤꿈치가 먼저, 그 다음엔 발바닥 가운데가 땅에 닿은 후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툭기듯 걷는 것이 좋다.

#### ③ 허벅지 근육 단련하기

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 후 벽에 엉덩이부터 뒤통수까지 붙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무릎을 90도 정도로 굽히고 10초간 버티기를 하루 3회씩 세차례 하면 대퇴사두근을 단련할 수 있다. 허벅지 근육 상태가 궁금하다면? 의자에 앉은 후 엉덩이를 1인치만 띄워 보자.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편 후 30초 이상 버틸 수 있으면 건강한 상태다.





**모든 게 완벽하다, 현대건설 공식 채널**

**네이버 블로그**  
 쉽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이미지를 알리는 현대건설 대표 채널 중 하나다. ▶현대건설 뉴스 ▶현대건설TV ▶건설이야기 ▶트렌드 ▶힐스테이트 등 5개 카테고리 구성됐으며, 현대건설 및 디에이치&힐스테이트의 소식과 유익한 문화·생활 정보까지 두루 만나볼 수 있다.

- Hit 주목 콘텐츠!**
- 2020년 1분기 현대건설 수주특독(해외편)
  - 뉴스톡! Talk\_H라이프 사용 설명서

**유튜브(현대건설TV)**  
 건설사가 딱딱하고 보수적인 것만 같다고? '현대건설TV'에서는 이런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깰 수 있다. 사우가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어 회사 이곳저곳을 체험해 보는 콘텐츠부터 우리 회사의 자랑거리인 국내외 현장 모습, 건설업계 최초의 웹드라마 현대건설'웹', 래퍼 키썬과의 특급 콜라보 뮤직비디오 등 재미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업데이트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Hit 주목 콘텐츠!**
- 독일 여신 타베아, 첫눈에 반해버린.Ssul
  - ㅇㅇㅇ(어디? 어디!) ep.1 안전문화체험관

**페이스북**  
 공식 채널 중 가장 빠르게 현대건설 최신 소식을 만나볼 수 있다. 페이지

팔로우만으로도 우리 회사의 수주·수상 소식과 다양한 콘텐츠 등을 한 번에 체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외국인 직원과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외국인을 위해 글로벌 페이지(www.facebook.com/HDEC.Global)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우리 회사의 대표 프로젝트를 멋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는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의 훌륭한 조경 사진들이 게재돼 있다. 향후 현대건설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만 볼 수 있는 사진들이 제공된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겠다.

**링크드인**  
 세계 최대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인 링크드인에는 우리 회사의 최신 소식이 영어로 업데이트된다. 이곳을 통해 우리 회사에 관심을 보낸 사람은 21만 명 남짓. 해외 고객들의 반응이 궁금하다면 팔로우해 보자.

**카카오톡(@현대건설)**  
 우리 회사 임직원 중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현대건설' 친구 등록만 하면 주요 홍보 콘텐츠를 딜리버리 서비스로 만나볼 수 있어 편리하다. 최근 진행된 '창립기념-라떼 사진공모'처럼 이벤트 응모 채널로도 활용된다고 하니 친구 등록은 필수다.

**완벽한 주거 공간을 꿈꾸다! 디에이치&힐스테이트 채널**

'단 하나의 완벽함' 디에이치(THE H),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힐스테이트(Hillstate)를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디에이치 채널에는 브랜드 홍보 영상과 '디에이치가 완벽한 주거 공간인 이유'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인터뷰가 담겼다. 힐스테이트의 채널 '힐스 캐스팅'(힐스테이트+브로드캐스팅 합성어)에는 매년 새롭게 선보이는 주택 신상품 H시리즈를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힐스라이프, 연예인과 전문가들이 함께해 주목받는 ▶분양 영상 ▶알아두면 득이 되는 부동산 토크쇼 ▶모델하우스 실방문기 등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다각화된 영상 콘텐츠를 두루 만나볼 수 있다.

- 유튜브 Hit 힐스 캐스팅 콘텐츠**
- 흥선 부부의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리얼방문기!
  - H 클린알파의 청정지역 힐스테이트 이야기
- Hit 디에이치 콘텐츠**
- 건축 전문가가 말하는 완벽 한아파트, THE아너힐즈
  - 광고 전문가가 말하는 완벽 한아파트, THE아너힐즈

**승리의 현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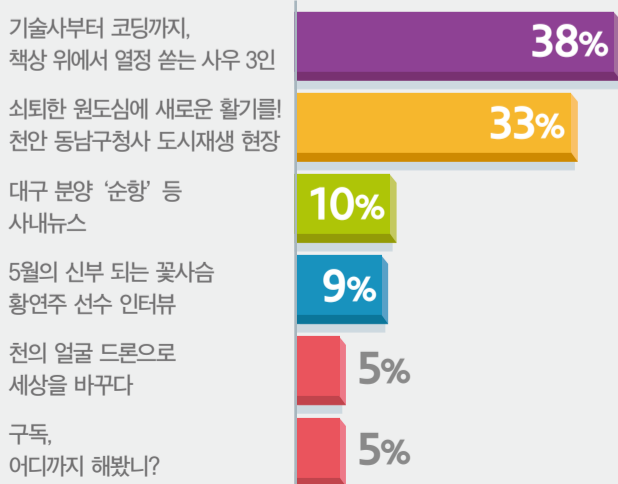
우리 회사 배구단의 생생한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채널들이다. 선수들의 멋진 활약상부터 경기&시즌 리뷰, 발달한 인터뷰 영상까지 콘텐츠가 풍성하다. 평소 여자 배구에 관심 없던 사람도 채널들을 보다 보면 '입덕'(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한다는 뜻의 신조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 유튜브**
- 포스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카카오톡**
- Hit 유튜브 콘텐츠**
- '힐스 인터뷰' 웰컴 투 현대건설배구단
  - 현.건.우.승. 4행시 도전!



**독자 참여 코너**  
**Be Together**  
**HYUNDAI E&C TODAY!**

**Q 386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가 더욱 재밌고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해 '독자참여' 코너를 진행합니다.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Q 창립기념호에서 읽고 싶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 #현대건설 사우들의 위기극복 스토리
- #가족들과 함께 가기 좋은 캠핑장
- #사우들의 편안하고 재밌는 일상 이야기
- #마포아파트부터 디에이치까지, 현대건설 주택의 변화
-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독자 의견 보내면 사보신문이 씁니다!**



'아아(아이스 아메리카 노의 줄임말)'를 외치게 되는 요즘입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 만큼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지만,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진 잃을 순 없죠? 사보신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QR코드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 1 QR 코드를 통해 '독자참여' 코너 접속
  - 2 재미난 질문에 응답하기 (꼼꼼한 답변은 당첨 확률 up!)
  - 3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 참여 기간** ~6월 16일(화)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잔 / 5명)



